

수목 기증으로 만든 ‘탐진강 향기숲 공원’



장흥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탐진강에 ‘탐진강 향기숲 공원’이 조성된다. 무기한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탐진강이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때까지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탐진강은 도심 속의 휴식 공간으로 주말에는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오는 곳

으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평일에는 지역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과 산책을 위해 즐겨 찾고 있는 쉼터로 장흥군에 없어서는 안 될 명소로 자리 잡았다.

군은 탐진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탐진강 향기숲 공원’을 조성한다

장흥군, 세계적 명소 자리매김까지 무기한 진행 “장흥 방문 필수코스·대표 관광지 발돋움 노력”

고 전하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수목 기증으로 사업에 활력이 불고 있다고 밝혔다.

장동면 양우마을회에서 팽나무 2주, 안양면 교동마을회에서 느티나무 1주, 안양면 독지가 한 분이 팽나무 1주를 기부해 주었다. 군은 기부 받은 수목을 탐진강 바둑소 주변에 상징목으로 식재했다.

군은 마을에서 필요치 않는 수목이나 고향을 사랑하는 독지가가 기증해 준 수목, 각종 개발 사업장에서 베어지는 수목 중 조정 가치가 있는 수목을 탐진강 향기숲 공원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나무와 상록수, 느티나무 등

향기가 나는 수목과 조화류 등을 식재하여 탐진강 향기숲 공원의 미관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탐진강 향기숲 공원이 창랑정, 물과학관, 토요시장 등과 함께 장흥 방문객들의 필수 코스이자 대표적인 관광지 자리매김할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조성된 공원이 우리 군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치유하는 힐링 공간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탐진강에 기부 수목 접수를 원할 경우, 장흥군청 산림휴양과(061-860-6073)로 문의하면 된다. 기부 수목 이설 비용은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가사도 주민들이 10일 오전 쉬미항에서 감사원의 보조금 환수 결정으로 여객선 운항 중단위기에 놓인 것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진도군 ‘예산 불법전용’ 파장 가사도 운항 여객선 또 위기

진도군의 급수선 예산을 여객선(도선) 건조비용으로 불법 전용한 파장이 쉬미항~가사도 간의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이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건조와 관련, 사업비의 ‘불법 용도 변경’으로 판단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면서 ‘여객선 매각’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10일 진도군과 가사도 주민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9년 진도군이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7억원으로 여객선을 건조한 것은 “부적절한 사용”이라며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다.

국도교통부로부터 급수선 건조 명

이 과정에서 국도교통부 등에 급수선 건조비용을 여객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기존 항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를 무시한채 진도군은 2018년 여객선을 건조해 쉬미항~가사도 항로에 투입했으며, 현재 하루 4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가사도 3개 마을 250여 가구의 농수산물 수송은 물론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민들은 보조금 환수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여객선 운항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면서 반발하고

급수선 건조 비용으로 여객선 건조 ‘보조금 환수’ 통보
“100억 넘는 반납금 막막…여객선 매각할 수 밖에 없어”
주민들 “권익위, 절차적 하자 밝혀…환수조치 취소돼야”

목으로 지원받은 사업비를 임의대로 여객선 건조로 사용한 것은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결론이다.

진도군은 도선이 끊긴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감사원은 예산에 대한 불법전용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의 환수 결정으로 진도군은 보조금 27억원에 더해 300%에 달하는 제재부담금까지 모두 108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다.

진도군 관계자는 “감사원 보조금 환수 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경우 100억원이 넘는 반납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항 중인 여객선을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지난 2015년 쉬미항~가사도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중단되자 급수선 건조비용으로 여객선을 건조했다.

있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최근 통보된 국민권익위원회조사 결과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한 만큼 보조금 환수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이날 쉬미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부처가 사실관계 오인에 따른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비 변경 신청을 불승인했다”면서 “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목적의 사용이 아닌 적법한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라도 보조금 환수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사업비 반납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관계자 법적 조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남도 순례길 구간’산책로 개통

칠량면 영복리~대구면 사당리까지 야자매트·데크로드 조성

강진군은 문체부가 지정한 전국 90개, 1,470km의 걷기여행 구간 중 강진의 ‘남도 순례길 구간’에 새로운 산책로를 개설하여 감성 충만한 힐링 명소 조성으로 관광객 맞이에 들어간다.

위 구간은 남도 유배문화와 다양한 순례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강진에서 노을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정평이 났으나 주변에 따라 마련된 산책로가 없어 이를 지나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아쉬움

을 안겼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노을 경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책로 개설공사를 추진해 칠량면 영복리부터 대구면 사당리까지 야자매트 구간과 데크로드 구간을 조성했다. 더불어 길이 2km, 폭 3m의 해안 산책코스 조성도 완료했다.

강진군은 이번 산책로 개설 공사를 통해 ‘남도 순례길 구간’에서 자전거와 걷기 여행은 물론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여유롭게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승국 강진군수는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들에게 탁 트인 자연의

아름다움과 힐링을 선사하며, 지역 관광과 연계한 감성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치유와 힐링’ 해남군 포스트 코로나 숲관광으로 간다

흑석산 치유의 숲 완료…금강산 둘레길 조성 숲 관광자원화

해남군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관광의 확산에 대비해 깨끗한 자연경관과 숲의 가치는 높이는 숲 자원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읍의 진산(鎭山)이자 군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해남군 금강산에는 명품 둘레길이 조성된다.

총연장 34.26km의 둘레길은 오는 2023년까지 금강산, 만대산 일대 기존

임도와 등산로 26km를 연결하고, 미개설 구간에는 신설임도 8km를 조성한다. 둘레길은 주요 노선에 소규모 숲속정원을 조성하고, 자갈길, 흙길, 모래길, 꽃길 등 다양하게 구성한다.

또한 기존 임도 내에 위치한 해남읍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구간을 비롯해 편백·백합 나무숲 구간, 광활한 들녘과 주작산·흑석산의 절경이 조화를 이룬

구간 등도 둘레길 내로 편입시켜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바이킹길로 옥천면 신계-영신 구간에 임도 1.5km를 신설하는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 둘레길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해남읍민의 대표 둘레길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의 대표적 휴양림, 흑석산 치유의 숲도 작금 4년만에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된다.

계곡면 흑석산 자연휴양림 인근 50ha에 조성된 치유의 숲은 180m의 치유센터를 비롯해 치유 프로그램실, 치유숲길, 치유정원 등이 들어섰다. 특히 치유의 숲은 음이온 발생량이 많은 참나무 군락지를 중심으로 740m의 무장애 데크 길과 350m 흑(黑)둘레길이 조성돼 휴양객들이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을 걸으며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휴양림 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숲속의 집 16동을 신축하고, 정원, 수영장 등 노후 휴양시설을 현대화해 산림휴양관광시설로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